

<서 평>

한국의 부동산 금융

손재영(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8.

노 태 옥 (Rho, Tae-Ug)*

근자에 들어 우리나라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경험해 온 나라도 없다. 부동산 분야도 그 중의 하나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마지못해 대외개방을 하였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국제화는 부동산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 부동산 분야 중에서는 부동산 금융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부동산 금융은 대외개방 이후 불과 10여 년의 짧은 기간에 놀랄만한 선진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다양한 부동산 금융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고,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는 부동산 금융의 국제화로 나아가고 있기도 하다.

부동산 금융은 특히 종합적이고 가변적인 부동산의 특성을 모두 안고 있다. 어느 한 분야에 대한 깊이와 이론만으로 전체를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부동산 금융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는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가진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 책이 출발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건국대학교 손재영 교수가 총괄하여 펴 낸 이 책은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참여 해 온 많은 실무 전문가와 부동산학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물이다. 실무 전문가들은 부동산 금융 전반에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이론적인 접근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가히 부동산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이 책은 단순히 기존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이 아니고 각 주제에 맞추어 집필자를 정한 다음 오랜 기간에 걸쳐 원고를 수집하고 또 정리하여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세부 주제에 정통한 전문가가 집필을 하고 또 이를 전문가들

* 강남대학교 부동산행정대학원 원장, ntu@kangnam.ac.kr

이 검토하게 함으로써 주제의 일관성과 품질을 잘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나올 다른 책들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부동산학의 학문적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책은 결국 읽는 사람들의 몫이다. 시의적절한 주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준비한 이 성찬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다. 부동산 금융을 공부하는 학생들, 부동산 금융에 관심을 가진 실무자들, 부동산 금융과 관련되는 정책을 다루는 정책 전문가들이 이 책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토론하여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학문 그리고 실무 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빌어본다.